

강진군, 딸기 육묘 막바지 여름철 관리 철저 당부

올해 전남 딸기 주산지 수해 피해로 딸기묘 부족사태 경고 방제 소홀하면 큰 피해...적용약제 3~4일 간격 주기적 처리

강진군이 딸기농가들에게 육묘 막바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딸기는 모종에 따라 수확량과 소득이 크게 차이나는 작물이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역병과 탄저병 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우려가 크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장마가 끝난 지금부터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 좋은 딸기묘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딸기묘 만들기는 3월부터 준비해서 9월 정식전까지 이루어지는

데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8월에 자칫 방제를 소홀히 하면 정식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용약제를 3~4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병든 포기나 잎은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날씨에 따라 관수량을 조절해 과습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환기를 잘 시켜 병균 발생을 억제해야 된다.
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많은 비로 딸기 주산지의 모종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해 딸기묘 부족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딸기육묘농장은 크게 토경육묘와 고설식베드육묘로 나뉘는데 많은 수의 토경육묘장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딸기 뿌리는 침수에 약해 단시간의 침수만으로도 모종을 못쓰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딸기 정식기인 9월 초순 딸기 모종이 없어서 영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미리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부터는 딸기 꽃을 만드



는 작업도 병행해야 되는데 비료를 줄여서 관수하고 적절한 정식시기를 정해서 꽃눈을 확실하게 만든 다음 심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군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은 "딸기 주산지의 수해피해로 딸기묘 부족상황이 예상되므로 지금 재배중인 딸기묘를 철저히 관리해

서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현장에 출장해 맞춤 지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사고 캠페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

완도군은 지난 14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완도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 안전보안관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남해안 대표 휴양지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개인 위생수칙, 물놀이 안전 수칙, 구명조끼 착용법 등에 대해 설명하며,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캠페인을 실시한 14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방문한 관광객은 1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기에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한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코로나19로부터 방문객과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37일간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3차 방역 시스템을 도입, 1차는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망골항, 완도여객터미널 등에서 완도로 진입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 중이다.
2차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 출입구 3곳에서 이용객 발열 체크를 하고 게이트형 소독기를 통과하면 손목 밴드를 착용한 후 백사장으로 진입하도록 한다.
3차는 드론을 활용해 이용객의 밀집도를 파악해 밀집도가 높으면 분산을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 그리고 군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쓸비치 입구서 농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할인 판매

4일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진도군이 쓸비치 리조트 진도 입구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청정 농수산물 드라이브·워킹 스루 할인 판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감소된 진도 참전복, 애플망고, 건어물, 울금 가공식품, 건어물 등 농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사회적 거

리는 두면서 청정 농수산물 저렴하게 판매했다.
청정 농수산물 드라이브·워킹 스루 할인 판매는 4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다.
특산품은 전복 1kg(10마)에 3만원, 애플망고 1팩에 2만원, 울금분말은 1+1 1만원, 구운곰팡김 50장에 1만원 등 할인 판매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농수산물 특관행사를 드라이브·워킹 스루와 직거래 장터 형식으로 최대 30~40% 저렴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 칠량 삼흥저수지, 공원으로 가꾼다

칠량선후회 주도...내년부터 공원화 사업 본격 추진

강진군 칠량면 삼흥저수지 주변이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칠량선후회(회장 최립)는 지난 8일 관내 모 음식점에서 7월 '칠량선후회 월례회의'를 개최해 '삼흥저수지 주변 공원화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2021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칠량선후회에 따르면 '삼흥저수지 주변 공원화사업'은 총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삼흥저수지 주변에 화목류를 식재하고, 향후 10년간 관리함으로써 겨울철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다. 4억 원이 소요되는 화목류 식재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해 추진하고, 관리비 1억 2천만 원은 지역주민과 향우 등을 대상으로 모금을 통해 확보한다.
이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칠량선후회에서는 연초부터 임원회

의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화순군 민연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등 선진지 견학과 전문기관 자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기반조성을 위해 삼흥저수지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관리비 모금을 위해 전라남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완료하는 한편,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최립 칠량선후회장은 "맑은 물과 숲이 어우러져 풍광이 수려한 청정지역 삼흥저수지에 화목류를 식재해 가꾸어 나간다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더 없이 훌륭한 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최고품질 쌀 생산 위해 후기 관리가 중요"

벼농사 시범사업 중간평가회

해남군은 13일 옥천면 향촌마을 벼농사 시범단지에서 농업인, 농업협동조합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벼농사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등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벼 생

육상황과 분담 관리요령,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시 문제점 등을 시범단지 현장에서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긴 장마의 영향으로, 후기 벼농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 지도했다.
올해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7월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1.4℃ 낮

고, 일조시간이 156시간 적어 일부 생육이 부진하고, 도열병, 흑미나방 등 질소질 비료가 많은 포장을 중심으로 병해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미나방은 1차 방제가 소홀한 논을 중심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적용약제로 중점방제를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